

一球一生 一球一死

일구일생 일구일사

공 하나에 살고 공 하나에 죽는다.

글. 배수완 BBS 인사총무부 사원

Baseball

‘일구일생, 일구일사’ 공 하나에 살고 공 하나에 죽는다.

영화 퍼펙트게임에서 나온 대표적인 대사입니다. 의역하면, 매 순간 진심을 다하자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바탕으로, 저의 취미인 야구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즐기고 있는지 소개해 보려 합니다.

야구가 내 인생이 되기까지

① 계기

저는 원래 운동을 정말 싫어했고, 관심도 거의 없었습니다. 야구 이전의 취미라면 프라모델 조립처럼 다소 정적인 활동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 무료 다시보기에서 ‘메이저’라는 만화를 발견했고, 별생각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총 화수가 100화를 훌쩍 넘는 장대한 분량이었지만, 저는 한 번 정주행한 뒤에도 두 번이나 더 정주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화를 다 본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속 뜨거움이 느껴졌고 한참 고민 끝에 “아, 나도 야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야구공을 잡았고, 그때부터 제 삶과 야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② 시작

운동에 무지하고 야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던 중학교 3학년이었기에, 공을 잡는다고 해서 기적처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구에는 원리와 메커니즘 등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지만, 그 시절 저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캐치볼을 하거나, 프로 선수의 투구 자세를 흉내 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유난히 운동신경이 부족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야구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영화 퍼펙트게임 포스터



메이저 만화 표지

③ 성장

저의 야구 스승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선수 출신의 투수였던 형이었습니다. 형이 제게 어떤 재능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잘 던지고 체격도 가장 좋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였을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저 취미로 즐기려던 야구를 저에게 ‘야구 = 인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형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그 형이 야구를 하고 있던 공터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형을 만날 수 있었고,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형 밑에서 기본기부터 하나씩 배우며 조금씩 성장했고, 제대로 야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형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으며, 저를 야구로 이끌어준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④ 변화

제 MBTI는 ENTP로,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하곤 합니다. 갑자기 저의 성격을 말한 이유는 야구를 접하기 전까지 소극적으로 살아왔던 한 아이가 야구를 배우면서 세상 겁 없이 덩 버드는 외향형 인간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저 취미라고 생각했던 야구가 저에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야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당히 야구는 제 삶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즐기는 방식

① 연습 및 시합

성인이 되어서 취미로 야구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호회나 팀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현재 사회인 야구팀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다른 팀과 시합을 통해 교류하면서 제 실력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야구로서 사회인야구 시스템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실력과 선출 유무에 따라서 사회인야구는 1~4부 리그로 구분되며, 1부 리그가 사회인야구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의 리그입니다. 실제로 초종고 선출 및 심지어 프로 출신 선출도 참가하기 때문에 이제 막 입문한 분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리그가 존재하고 야구를 정말 순수하게 즐기는 분들도 많으므로 시합보다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동호회에 가입하여 연습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② 야구 관람

저는 15년 차 '롯데 자이언츠'의 팬입니다. 부산이 고향이어서 자연스럽게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왜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하는지 물어보신다면 그저 저는 부산 출신이고, 부산에 롯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를 좋아하게 된 순간부터 롯데를 응원했기 때문에 롯데의 순위와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은 2025년도 8월이고 현재 롯데는 3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순위가 롯데한테 대



친선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본 경기장



정기 야간 연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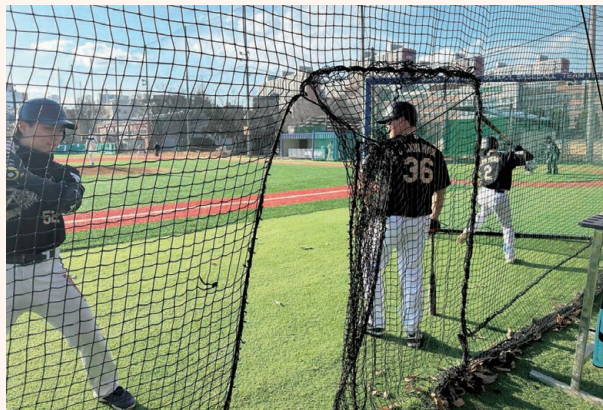


단한 기록이라는 것을 야구팬이라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화 '머니볼'의 주인공 빌리 빈 단장은 경기를 직접 보면서는 징크스 때문에 주로 영상으로 경기를 관람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도 직관을 가끔 즐기긴 하지만 평소에는 문자 중계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를 즐기는 방식은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야구의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합 중 대기 장면





사직야구장 올해 첫 직판



사직야구장 방문 인증

또한 직접 야구를 하고 배우다 보면, 경기를 관람하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물론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우선이지만, 선수로서 경기를 볼 때는 선수들의 세세한 움직임에도 눈이 갑니다. 특히 저의 주 포지션이 투수라서 투수의 투구 동작을 유심히 살펴보고, 실제 플레이에 적용해 보며 저만의 방식으로 야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시합 중 투구하는 모습

글을 마치며

야구를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하지만 실제로 연습하고 시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투수로서 던지는 건 정말 잘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제구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늘 연구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 야구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과 야구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취미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여가생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방향과 성격을 바꿔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가 제 인생에 들어온 뒤, 제 삶이 180도 달라진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가벼운 취미라기보다는 더 깊게 야구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저와 같은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